한국NVC센터

제1회 NVC중재 갈등해결 컨퍼런스

NVC중재 공감을 말하다

2017.10.28.

피스센터

주최 : 한국NVC중재협회

후원 : 한국NVC센터

제1회 NVC중재 갈등해결 컨퍼런스

NVC중재 공감을 말하다

목 차

인사말 1

한국NVC중재협회 소개 2

발제 NVC중재의 전문성과 범위 6

강지명 성균관대 법학연구원 선임연구원

발표 임대단지 갈등중재의 성공과 실패 16

윤인숙 산청간디숲속마을대표

발표 선행초등학교의 NVC(비폭력대화) 활용 사례를 통해 본 학교폭력의 평화적 해결 가능성 28

김희정 양산초등학교 교사

발표 내 아이를 위해서라도 이 재판에서 꼭 이길겁니다! 40

권영선 한국비폭력대화교육원 강사. 서울가정법원 가사조정위원

한국NVC센터 소개 50

인 사 말

갈등이 있는 곳에 관계의 회복과 평화를 꿈꾸며 시작한 한국NVC센터의 NVC 중재 교육이 2010년을 시작으로 벌써 8년이 되었습니다.

우리 자신의 내면이 평화롭지 않다면 마음으로는 평화를 만들고 싶지만 실상은 세상에 폭력을 더하기에, 우리가 세상에 나가기 전 우리의 내면을 돌보고 평화롭게 하는 일과, 중재의 기술/전문성을 쌓는 것에 똑같은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내면의 평화를 시작으로 갈등이 있는 세상에 평화를 더하고자 했던 꿈이 현실로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각자가 속한 공동체 속에서 그리고 사회 각 분야에서 NVC정신을 기반으로 갈등을 다룬 경험을 나누고자 합니다.

함께 축하하고, 애도하고, 우리 안에서 배움이 일어나는 시간이길 기대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초대합니다.

한국NVC중재협회 회장 이연미

한국NVC중재협회 소개

한국NVC중재협회는
비폭력대화 정신을 기반으로 개인과 집단의 갈등을 평화로운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을 돕고, 회원들의 성장을 지원하며, 상호 유대를 목적으로 합니다.

한국NVC중재협회는 2014.5.31. 창립을 했고, 2개의 분과위원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 조직
- 회장 : 이연미 (박기원 서포트)
- 총무 : 박성일
- 감사 : 황필규
- 자문위원 : 캐서린한, 박성용
- 분과위원회

분과위원회	위원장
연구위원회	강지명
활동지원위원회	권영선

○ 대상 : 한국비폭력대화교육원 및 CNVC 인증지도자가 주관하는 중재자 과정을 이수하고, 협회의 설립목적에 동의하는 개인은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 자격은 교육 90시간 이상)

○ 문의 : 02-391-5585 팩스 02-325-5587 mediation@krnvc.org
(120-836) 서울시 서대문구 신촌로 3 가길 33

주요 활동

○ **'부천지원'과의 협력사업**

2013년 부천지원은 6개 회복적 사법 전문기관(한국NVC센터 참여)과 업무협약을 체결,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을 진행하였고, 이 가운데 형사재판 중인 사건 10건에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을 실시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대화를 통한 진정한 상호 이해가** 이뤄져 이를 기반으로 피고인은 **진정한 사과와 피해 회복을 위한 자발적 책임**을, 피해자는 **치유·용서와 피해 회복의 결과**를, 또 **화해와 미래지향적인 당면 갈등의 해결을 이끌어 내는 결과**를 낳았다.(기호일보 2013.12.17.)

일시	구분	참여위원	비고
2013.8.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간 형사재판에서의 회복적사법 실시 MOU 체결**		
2013	**부천지원 형사재판 회복적사법 시범실시 참여 2건 진행**	캐서린한, 이연미, 박기원 정지선, 한승희	

○ **화해권고위원, 가사조정위원 활동**

2012년 인천지방법원 화해권고위원을 시작으로 2013년 서울지방법원 화해권고위원, 부천지원 가사조정위원, 2015년 서울가정법원 가사조정위원 등으로 활동.

○ **대전가정법원과 함께 비폭력대화스쿨을 3년간 진행**

2014년 법조인을 대상으로 1기 비폭력대화스쿨을 진행,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지역 주민으로 확대해서 실시함.

○ **경찰청 협력 교육**

경찰청 NVC 사내강사 과정' : 2015.11.30.~12.11(80시간)까지 경찰교육원에서 진행

회복적 소년사법 연구회(R.J.J) 영략강화 워크숍 – 회복적 서클을 주제로 학교전담경찰관 30명과 함께 2016.7.21.~22. 진행

○ **학교에서의 실천사례**

2014년 선행초등학교에서 주1회 진행자가 학교에 상주하면서 크고 작은 갈등이 있을 때 조정 또는 회복적서클을 진행하였고, 교사 • 학생 • 학부모교육이 함께 진행되었다.

사업 3년차인 **「2016년」**에는 선행초등학교 **자체의'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을 세웠고, 그 주요 내용으로 교사, 학생, 학부모 **예방교육**, 학교폭력위원회에 **외부전문기관의 참여** 그리고 갈등이 있을 경우 학생들이 언제든지 찾아와서 공감을 받고, **대화모임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을 운영**하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2017년」에는 교사가 국어와 **도덕과목과 생활교육에** 비폭력대화에 기반한 **소통과 공감교육을 적용**하고 있고, **학부모가 조정자로 참여**하고 있다. 선행초등학교의 사례가 전해져서 2015년에는 덕장초등하교, 2016년에는 백석중학교로 **확대**되었다.

NVC 중재 진행자 육성 과정

일시	교육명	강사	비고
2007.11.10(6시간)	NVC 중재 교육	Jeff Brown	서머셋
2010.12.2(목)~12.5 (일) (4일, 24시간교육)	NVC 중재 교육	존 키니언, 아이크 라사터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국제회의장
1차 워크숍 2011.9.22(목)~26(월) 2차 워크숍 2012.2.9.(목)~12(일) 3차 워크숍 2012.6.21.(목)~25(월) (4박5일 숙박교육)	NVC중재전문가 양성을 위한 1년 집중프로그램	존키니언 (JOHN KINYON)	•9개월 동안 3회 의 집중 워크숍 진행 •11개월간 한달에 한 번 TELECONFERENCE 세션 혹은 연습모임진행 •교육 참가자들이 일주일에 한 번 2인1조 및 3인1조 연습
1차 워크숍 2013.1.10(목)~14(월) 2차 워크숍 2013.4.25.(목)~29(월) 3차 워크숍 2013.10.3(목)~7(월)	NVC중재전문가 양성을 위한 1년 집중프로그램	존 키니언 (JOHN KINYON), 이연미	
1차 워크숍 2013.2.20(수)~24(일) 2차 워크숍 2013.5.8.(수)~12(일) 3차 워크숍 2013.10.23(수)~27(일)	NVC중재전문가 양성을 위한 1년 집중프로그램	이연미 (캐서린 한, 한승희 지원)	
2014년 2월 23일(일) 3시~5시	조정/중재 전문가를 위한 기초 법교육 (회복적 사법을 중심으로)	부천지원 임수희 판사, 이순욱 국선전담 변호사, 전성주 변호사, 김학무 변호사	회복적의네트워크 공동교육
1차 워크숍 2014.3.26(수)~30(일) 2차 워크숍 2014.6.4(수)~8(일) 3차 워크숍 2014.9.24(수)~28(일)	NVC중재전문가 양성을 위한 1년 집중프로그램	이연미 (캐서린 한 지원)	
2014.7.9.일(수)~13일(일) 4박 5일 숙박교육	NVC 중재 전문가로 나아가기 위한 NVC 중재 심화 워크숍	존 키니언 이연미	
2015년, 2016년, 2017년 1년 집중프로그램 진행	NVC중재전문가 양성을 위한 1년 집중프로그램	이연미 (캐서린 한 지원)	

회복적 서클 진행자 육성 과정

일시	교육명	강사	비고
2010.12.7~11.	비폭력대화에 기반을 둔 회복적 정의 전문가 양성 워크숍	존 키니언 & 아이크 라사터	
2011.12.5~12.9	NVC에 기초한 회복적 서클 진행자 훈련	John Myser, Magarita Mac, Verana Preiss	
2014.10.21	회복적서클 공개강의	도미닉바터 Dominic Barter	
2014.10.23~26	회복적서클 진행자를 위한 심화 워크숍	도미닉바터	
2014.10.27	서울가정법원 간담회	도미닉바터	
2014.10.28	기자 간담회	도미닉바터	
2015.3.21~23	회복적서클 워크숍	Karl	
2016.10.22~23	회복적서클 워크숍	Karl	제주

발 제

NVC중재의 전문성과 범위

강지명
성균관대 법학연구원 선임연구원

NVC중재의 전문성과 범위

강지명

성균관대 법학연구원 선임연구원

갈등양상과 NVC중재

: 나 너 우리

그리고

공감

공감과 대화를 바탕으로 한 NVC중재

-갈등해결에 탁월

왜?

대화~경청~말하기

공감은 신뢰로 이어짐.

신뢰-신뢰-신뢰의 갈등해결: 공정성, 진정성

NVC중재의 이해

1. 비폭력대화가 기반
2. 비폭력대화 중재: NVC Mediation

NVC중재는? arbitration? Mediation?

Mediation의 국내 번역용어

: 중재[仲裁], 조정[調停], 알선[斡旋], 알선·중재, 화해조정 등을 사용

우리말에서 중재[仲裁]와 조정[調停], 알선[斡旋] 의 의미

중재[仲裁]

(1)제삼자가 분쟁을 하는 당사자들 사이에서 분쟁을 조정하여 화해를 모색하는 일. 제삼자의 결정은 구속력을 가진다.

두 국가는 국제 연합에 중재를 요청하였다.
청나라는 러시아의 중재로 영국과 베이징 조약을 맺었다.
노사 분규(勞使紛糾)가 오래 지속되자 노동부가 중재에 나섰다.

(2) 분쟁에 끼어들어 쌍방을 화해시킴.
=>제3자의 결정이 구속력이 없음.

주변 국가들의 중재가 없었다면 이 전쟁은 더 지속되었을 것이다.
민지 엄마는 싸움의 진행 과정을 잘 아는 지연이 엄마에게 중재 요청을 했다.

=>신뢰하는 자에게 도움을 요청함. 현 NVC중재의 중재의미

조정[調停]

(1) 대립되는 둘 사이의 분쟁을 중간에서 조절하여 타협할 수 있도록 화해시킴.

예) 그의 조정 능력은 첨예한 대립의 경우에 더욱 그 진가를 발휘한다.
사회 구성원들 간의 자율적 조정에 의해 민주주의를 실현해야 한다.
동로마 제국 말기의 황제들은 쇠퇴해 가는 국력을 외교적인 협상과 조정으로 보완하려 하였다.

(2) [법률]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법원이 당사자 사이에 끼어들어 쌍방의 양보를 통한 합의를 이끌어 냄으로써 화해시키는 일.

(3) [사회] 노동 쟁의가 해결되지 않았을 때에 노동 위원회에서 선출한 조정 위원이 노사 쌍방의 의견을 듣고 조정안을 작성, 제시하여 쟁의가 해결되도록 노력하는 일.

알선[斡旋]

(1) (기본의미) 남의 일이 잘되도록 도와주거나 일자리를 소개해 줌.
예) 나는 아버지 친구의 알선으로 이 가게에서 일하고 있다.
한 유통업체가 특정 브랜드 상품 판매 알선에 앞장서 빈축을 사고 있다.
서로에게 관심조차 없던 우리가 이렇게 결혼하게 된 것은 그 친구의 열성적인 알선 덕택이었다.

(2) [법률] 장물인 줄 알면서 수수료를 받고 매매를 주선해 주는 행위.

(3) [법률] 노동 쟁의 조정법(1963년 제정)에서, 쟁의 신고를 받은 행정 관청이나 노동 위원회가 노사(勞使) 중간에 들어 쟁의가 해결되도록 노력하는 일.
예) 노동 위원회의 적극적인 알선으로 이번 일이 원만하게 마무리되었다.

중재(arbitration)와 조정(Mediation)

중재(arbitration): 당사자들이 제3자에게 결정권한을 부여하는 것에 동의함.
중재자는 결정을 내리고 당사자들은 결정내용을 따름.

조정(Mediation): 당사자들이 결정권을 가지고 있음.
조정자는 합의에 이르도록 도와주는 역할

문제는 NVC Mediator의 역할을 살펴보면, 조정만 하는 것이 아님.
일반적인 Mediator+공감자 이므로 영미 등에서도 이런 사람들을 조정자Mediator라고 하기 보다는 각자 자신들의 Mediation을 강조하여 조정자를 peacemaker, coordinator, facilitator, reconciliator 이라고 부르고 Mediation을 다른 이름으로 부르기도함.
다시말해서 NVC중재의 중재는 오히려 Mediation이 아니라 reconciliation 이라고 할 수 있음.

NVC중재의 갈등해결 범위

: 내외면의 갈등 모두를 포함함.

: 나의, 너와의, 너희들의, 우리의 갈등

문제가 생겼어요.
갈등이 발생했어요.

내가, 우리가 해결하거나

제3자 : 동네 어르신, 관리사무소 등
제3의 갈등해결전문기관
사법기관

갈등해결을 위한 기관들

민간형
(상사중재원, 변호사분쟁조정센터, 시민단체(NVC센터, KOPI, 평화여성회갈등해결센터 비폭력평화물결, 갈등해결과 대화, 등), 등)

행정형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서울시이웃분쟁조정센터, 동물갈등조정관, 학교폭력자치위원회 등)

사법형
(법원(판사, 민사조정, 가사조정, 화해권고위원회), 검찰(형사조정위원회), 경찰 등)

NVC중재 갈등해결의 효과성과 범위

공감을 통한 신뢰를 바탕으로
진정성 있는 합의결과가 도출

자율적 갈등해결
갈등해결 역량강화
해결과정에서 공동체성의 회복

NVC중재는 나의 문제에서
우리의 문제까지
모든 갈등을
다루는 힘!

-강지명-

MEMO

발 표 1

임대단지 갈등중재의 성공과 실패

윤인숙
산청간디숲속마을대표

임대단지 갈등중재의 성공과 실패

윤인숙 /산청간디숲속마을 대표

임대아파트 단지와의 만남

- 2016년 초, NVC센터의 공모사업 아이디어 회의에서 지역갈등중재센터에 대한 제안이 나옴

- 도시계획 전문가(교수, 공사직원, 지역활동가 등)에게 중재센터에 대한 의견 청취
  → 대부분 중재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 표명

1. 길음단지에서의 경험

ㅇ 2016년 5월, SH주거복지처장의 문의

- 2016년 길음임대단지에 새로운 입주자대표가 선출되면서 전입주자대표가 운영하던 단지내 작은도서관 운영에 어려움 생김.

- 갈등으로 인해 작은도서관이 없어졌던 과거의 경험을 되풀이 하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전,현 대표간의 갈등 중재가 가능한지 요청

ㅇ 중재목적
- 작은도서관이 잘 운영되어 주민생활에 도움이 되는 것

ㅇ 중재팀 : 윤인숙, 박기원

ㅇ 중재시점 정하기
- 지역센터 담당자가 주민들 스스로 시행착오를 겪을 시간이 필요하다고 제안
- 한두 달 후 담당자의 요청으로 중재활동을 시작하기로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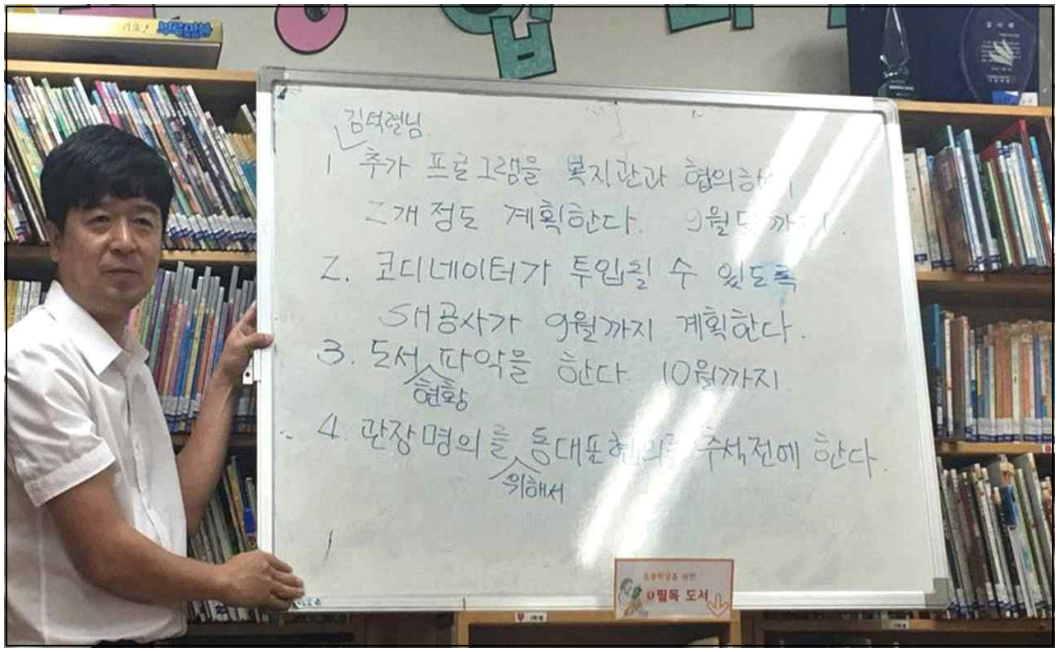
사전중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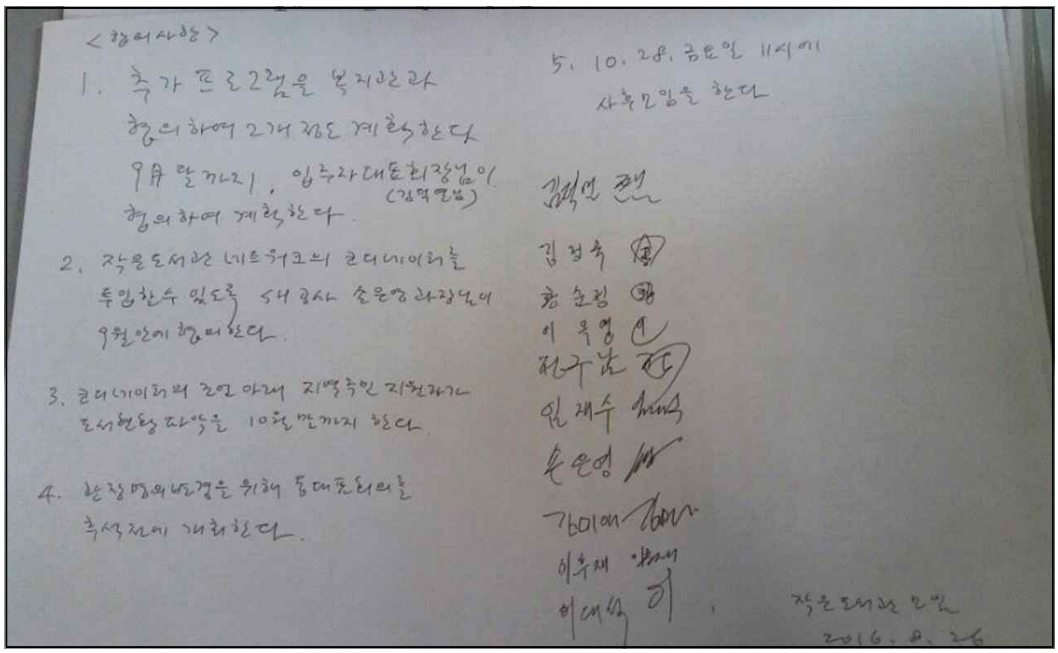
- 본사모임 두 달 후 지역센터담당자, 복지관담당자를 만나 대화 시작하기로 결정
 -> 관리소장 면담
 -> 관리소장의 연결로 입주자대표, 노인회장 만남

본중재

- 작은도서관에서 중재인 2명과 관계자 11인 참석
- 서로의 말이 잘 들리도록 중재자가 지원
- 서로의 마음을 연결한 후, 5개 합의사항 도출

발 표 1


김덕렬님
1 추가 프로그램을 복지관과 협의하여
2개 정도 계획한다. 9월
2. 코디네이터가 투입될 수 있도록
SH공사가 9월까지 계획한다.
3. 도서 현황 파악을 한다 10월까지
4. 관장명의를 위해서 동대표회의를 추석전에 한다.
9월독 도서


<합의사항>
1. 추가 프로그램을 복지관과
협의하여 2개 정도 계획한다
9月 달까지, 입주자대표회장님이
(김덕렬님)
협의하여 계획한다
2. 작은도서관 네트워크의 코디네이터를
투입할수 있도록 SH공사 손은영 과장님이
9월안에 협의한다.
3. 코디네이터의 조언 아래 지역주민 지원자가
도서현황 파악을 10월 말까지 한다.
4. 관장명의보결을 위해 동대표회의를
추석전에 개최한다.
5. 10. 28. 금요일 11시에
사후모임을 한다
김덕렬
김정숙
홍순정
이옥영
전구남
임재수
손은영
김미애
이후재
이대석
작은도서관 모임
2016. 8. 26

사후중재 : 축하와 감사, 그리고 기대

ㅇ 합의사항 확인

- 합의사항을 모두 이행했음을 축하, 서로의 노력과 협력에 감사

ㅇ 향후 방향 논의

- 작은도서관을 아동돌봄공간을 넘어 지역사회 문화공간으로 확대
- 복지관은 주민들이 원하는 것 보조하는 역할 수행
- 코디네이터의 도움을 받아 도서관 발전방향 논의
- 여러 관계자가 참여하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정기적 소통시간 마련

중재 일정 (5.24~10.28)

요청	본사 회의	5.24
사전중재	지역센터담당자, 복지관담당자	7.27
	임차인대표회장	8.19
	노인회(회장,총무,감사)	8.19
	관리소장	8.19
본중재	모두	8.26
사후중재	모두	10.28

길음단지 경험에서 얻은 것

적절한 시기의 중재 효과 확인
➔단지내 어려움 해결 + 주민자생력 확대+ 관리비용절감

- 주민들이 대화를 통해 갈등을 해결할 수 있음을 알게 됨
- 합의사항 이행 과정에서 스스로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음
- SH는 주민 자체 노력을 지원하고 직접개입을 줄이기로 결정

2. 동소문단지의 경험

ㅇ 2016년의 성과를 계기로 2017년 5월, SH주거복지처에서 7개의 악성갈등단지 선정, 가장 심각한 곳으로 동소문에서 중재 요청

ㅇ 갈등내용

- 노후아파트 난방을 중앙방식에서 개별방식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SH와 이에 반대하는 주민간의 갈등

ㅇ 중재목적

- 빠른 합의를 통해 주민생활을 편리하게 하고, 찬반으로 나뉜 주민 관계를 회복

ㅇ 중재팀 : 윤인숙, 박기원 2인

중재 진행과정

2017,5.16	본사 회의	갈등 현황 들음
2017.5.23	관리소장 면담	만날 사람 리스트와 연결 부탁
2017.5.23	전임차인대표 면담	찬성,반대 주민이 외면하면서 공동체가 무너지고 있음
2017.5.27	노인회장과 통화	반대대표와 상의한 결과 만나지 않겠다고 함
2017.5.29	전환 희망주민 면담	시작할 때가 중요한데 너무 시간이 많이 지났다는 의견
2017.5.31	반대주민과 통화	다른 사람들과 논의 후 대화 결정하겠다는 의견
2017.6.2	본사 담당자 면담	반대주민과 대화자리 만들기가 어려우니 대화자리를 만들어 주었으면 함
2017.6.7	반대주민과 통화	상대는 SH가 아니라 서울시임. SH의 약속파기에 대해 응징한다는 입장
2017.6.9	반대주민과 통화	대표 몇 사람만 따로 만나면 주민들이 오해함. 결론이 정해졌으므로 더이상 이야기할 필요 없다는 의견.

중재 진행 결과

ㅇ 반대주민대표를 만나는 것이 제일 중요하였으나 이들이 거부함
- 중재자를 SH의 대변인으로 오해
- 중재자와 대화한다면 주민들이 비난할 것이라고 우려

ㅇ 본사와 반대주민대표를 만날 방법을 논의하였으나 이루어지지 못함.

→ 반대주민대표와의 만남이 불가능하여 사전중재 단계에서 중단됨

동소문의 실패에서 배운 것

ㅇ중재에 대한 인식 개선 필요
- 중재를 중재요청자의 입장을 대변하여 설득하는 일로 오해

ㅇ중재자에 대한 신뢰를 지키는 방법이 필요
- 갈등 당사자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중재자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짐
- 갈등 당사자가 중재를 요청하기 보다 공신력있는 기관의 제안 등으로 중재 시작하는 방법

3. 마포성산단지의 경험

ㅇ 갈등 내용

- 놀이터 일부에 설치된 주민휴게실에 대해 인근 주민의 강한 반대 민원 발생.
- 설문조사 결과 존치 49.7%, 철거 및 이전 50.3%로 나타남.

ㅇ중재 목적

- 주민휴게실에 대한 갈등해결을 통해 관리주체와 주민이 평화롭게 지내는 것

ㅇ중재팀

- 담당 : 캐서린한, 윤인숙 / 지원 : 박기원, 권영선, 한승희

중재 진행과정

일정	면담대상	주요내용
2017.5.23	공사 담당자 회의	현황 공유
2017.5.30	관리소장	경위 / 만날 사람 추천
	반대주민 1인	반대 의견 경청
	마포센터 담당 과장	경위 / 만날 사람 추천
	반대주민 (교통장애인협회 회장)	반대 의견 경청
2017.6.2	주거복지처장, 시설사업처장	경청, 전체모임 참여 부탁
	마포센터 센터장	경청, 전체모임 참여 부탁
2017.6.3	통장 2인	경청, 전체모임 참여 부탁
	통장 2인	경청, 전체모임 참여 부탁
2017.6.4	반장 1인	경청, 전체모임 참여 부탁
2017.6.15	1차 주민모임 (30여명)	주민들 의견 정리
2017.6.19	2차 주민모임(30여명)	주민들 의견 정리
2017.6.21	3차 주민모임(12명)	주민들 의견 정리

중재 진행 결과

- 관리소장과 센터담당자를 통해 찬성, 반대 주민 리스트 받아 사전중재 진행
- 사전중재후 후 본중재 일정을 정해서 알림
- 주요 반대자가 본중재 전에 주민모임을 열어달라고 요청, 받아들임
- 1차 주민모임에 3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주로 반대 의견을 개진함
- 1차 모임 후, 두 차례 더 주민모임을 개최함.
- 주민의견이 커지는 것을 우려한 SH에서 중재 중단을 요청
- 주민모임 결과 공신력있는 주민대표가 없어 본중재를 진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

→ 본중재에 참석할 주민대표가 없어 중단.
주민모임 결과를 정리하여 공사에 전달함.

주민의견 분석

주민	입장	근거	주요 need
반대주민	시설물 철거	주민의견 수렴절차 부족 놀이터 유지 필요 활동에 불편	편안함 안전 놀이공간유지
찬성주민	기왕 설치했으니 잘 활용하자	철거에도 비용이 듬 주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음	주민소통공간 마을의 활기 주민복지
제3의견 주민	다른 곳으로 이동	논란이 오래 될수록 주민들만 피해받음 놀이터 공간도 확보하고 휴게실도 활용하면 좋겠음	놀이공간유지 주민소통공간 주민복지

마포성산의 실패에서 배운 것

ㅇ집단갈등 중재시 사전 준비 필요
- 공신력있는 주민대표가 있는지 확인 필요
- 대표가 없는 경우는 본중재가 불가능함

ㅇ 모임시간에 대한 사전 합의 필요
- 일하는 주민들의 참여를 위해 퇴근시간 이후에 만날 필요
  (일정 변경에 쓰이는 에너지를 아끼는 방법)

ㅇ 예상치못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지원팀의 필요
- 주민모임 개최 요청에 따라 예상치 못한 시간이 많이 소요됨
- 돌발상황에 대처하는 중재지원팀 구성이 필요

마무리하며....

- NVC중재는 집단갈등 중재의 더 많은 경험과 노하우 축적이 필요하다.
  (집단갈등 중재경험자로부터 배울 필요)
- 집단갈등 중재시에는 현장에 대한 충분한 사전준비가 필요하다.

- 공감을 해도 해도 막무가내 주민은 꼭 있다.
- 주민에게 휘둘리거나 돌발상황 발생시에는 중재자끼리의 공감이 중요하다.
  상호공감을 위해 2인1조를 구성하고, 때로는 지원팀 구성도 한다.

- 중재자들끼리, 관련자들과의 시간맞추기는 또 하나의 힘든 작업.

발 표 2

선행초등학교의 NVC(비폭력대화) 활용 사례를 통해 본 학교폭력의 평화적 해결 가능성

김희정
양산초등학교 교사

NVC(비폭력대화) 활용 사례를 통해 본 학교폭력의 평화적 해결 가능성

양산초 교사 김희정

Ⅰ. 학교에서 '비폭력대화'는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까?

학교에서 '학폭업무'는 곧 '스트레스'로 여겨진다. '같은 교무실에 학폭담당 교사의 한숨 소리 때문에 너무나 괴롭다'는 한 선생님의 이야기는 학폭 업무 자체가 교사에게 주는 폭력성을 느끼게 한다. 아직 어느 학교에서도 완벽한 평화적 프로그램이 정착되었다는 소식은 들어본 적이 없으니, 학폭을 평화적으로 해결한다는 것은 어쩌면 불가능에 가까운 일일지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존재하는 공간이 다만 '학교'라는 이유 때문에 우리는 이 가능성 0.1%라도 깊이 고민해보게 되는 것이다.

수원에 위치한 선행초등학교(2013년 지정 혁신학교)에서 있었던 사례를 통해 평화로운 갈등 해결의 길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1. 비폭력대화의 정착

선행초등학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긴 프로그램 중 하나가 바로 비폭력대화(Nonviolent communication, 이하 NVC)였다. 학교가 개교한 이듬해 경기도비폭력대화 교육연구회 2명의 교사가 이 학교에서 NVC를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을 시작했다.

첫 해는 교사들이 자체적인 학년군 연수(현재의 전문적 학습공동체와 비슷한)를, 이듬해에는 혁신학교 지정이 되어 본격적인 연수를 시작할 수 있었다. 교사들의 전체 연수, 학부모 연수가 지속적으로 이어졌다. NVC는 한 번 배울 때 기본적으로 16~30시간 정도의 커리큘럼으로 짜여져 있는데, 3번째 NVC 학부모 연수를 열었을 때는 25명 모집에 87명이 신청해 치열한 경쟁이 생길 정도였다.

매년, 또는 매 학기마다 학부모 연수는 계속 되어, 밤 시간에 아버지들을 위

한 교육이 진행되는가 하면, NVC2라는 심화과정까지 개설하는 등 2014년에는 연인원 150여 명이 교육을 받고, 이 때부터 학생들에게도 NVC 교육을 시작하게 되었다. 2015년에는 학생, 학부모, 교사들 대부분이 NVC에 대해 어렴풋하나마 알게 되었으며, 최소한 NVC가 무엇인지 그 뜻 정도는 구성원들 사이에 폭넓게 공유되어 있었다.

선행초의 시도는 이런 토대 위에서 시도되었다. 간혹 선생님들과 NVC를 나누게 되는 기회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선생님들은 '지금 당장 우리 학교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달라'거나 '간단한 팁이라도 달라'고 요청을 하곤 하신다. 이런 부탁에 대답하기는 상당히 난감하다. '어느 한 순간에 되는 일이 아니니 꾸준히 시도해보시라'라고 했을 때, 지레 관심을 뚝 끊고 외면해버리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나는 선생님들이 이런 시도에 호기심을 가지기를 원한다. 그러나 성급한 성과를 내기 위해 '방법적으로 시도'하는 것은 권하지 않는다. 그것은 NVC 정신에 맞지도 않을뿐더러 전혀 원하는 효과를 볼 수도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대신, 이 과정 안에 숨어있는 NVC의 의식을 찾아보고, 그것이 작용하는 과정을 살펴주기를 바란다. 그래서 아주 연약한 마음의 한 귀퉁이 조그만 희망을 느껴보는 것으로 충분하다.

2. 학교 교육에 접목하기

NVC는 학교 안의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다. 학급 담임 교사가 NVC 정신을 실천한다면, 그 학급의 관계는 분명히 획기적으로 변한다. 학년의 교사들이 NVC를 함께 배우고 실천한다면, 학년(군)의 문화를 새롭게 만들 수 있으며, 학년 교육과정이 훨씬 풍요롭게 짜여질 수도 있다.

학년 교육과정을 운영하다보면 가장 신경쓰이는 것이 바로 '다른 반'이다. '어떤 반은 이렇게 한다는데, 어떤 반은 이런 것도 한다는데'하는 민원 앞에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다.

학년에서 함께 공부하고 실천하려는 시도는 학년 공동체에 안전하면서도 유의미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어찌보면, 학교 전체의 공동체 문화를 만들 기 전 꼭 경험해보아야 할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 공동 생활지도의 방향을 NVC를 활용하여 세울 수 있다.
- NVC에 기반한 써클을 운영하여 학년 공동체의 규칙을 정하거나 문제를 해

결해볼 수 있다.

- 학급의 열고 닫는 프로그램 (써클)을 NVC의 느낌말/욕구를 활용하여 진행할 수 있다.
- 학급의 생일과 같은 '축하'를 NVC로 해볼 수 있다.
- 학부모 상담, 학생 상담 역시 NVC를 활용할 수 있다.
- 국어, 도덕과 같은 교과에서 관련있는 내용을 추출하여 주제통합 프로젝트 수업을 기획할 수 있다.

3. 학교 전체에서 시도해볼 수 있는 일

NVC를 학교 차원에서 시도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일에 신념을 가지고 추진해나갈 수 있는 교사(그룹)이지만, 만약 학교장이 동의하지 않으면 일을 진척시키기 어려우므로 사전에 관리자들과도 충분한 교감이 필요하다.

NVC는 단순한 대화의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공동체의 문화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구성원들에게 폭넓게 지지, 이해되는 것이 중요하다. 획기적으로 문화를 바꿔나가기 위해서는 대다수의 교사들이 NVC를 이해하고 실천의 의지를 공유해야 한다. 이를 위한 장기적이고 반복적인 학습(연수)과 연습 모임은 필수이다.

- 전문적 학습 공동체의 내실있는 운영으로 평화로운 학교를 만들기 위해 전체 교사들과 비전을 공유할 수 있다.
- 생활수칙을 만들 때 '서로의 욕구를 충족하는 방법을 찾는 방식'을 도입해볼 수 있다.
- **학교폭력 또는 상담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 '자녀와의 평화로운 소통', '가족과의 평화로운 관계를 위한 비폭력대화' 등의 주제로 학부모 연수를 진행하며, 연습모임 동아리로 이어지게 하여 학교의 평화적 문화를 만들어가도록 한다.
- 숙련된 학부모 인력을 활용하여 학교 안에 '공감'의 공간을 만들어 폭력적 상황을 완화시킬 수 있는 완충지대로 활용할 수 있다.
- 학부모 교사 강사군을 활용하여 전체 학생에게 NVC 소개 강좌를 운영할 수 있다.

위에 제시한 방법은 선행초에서 경험한 것으로, 모두 유의미한 성과를 거둔 사례들이다. 이제 선행초에서 있었던 하나의 사례를 통해 학교 안에서의 상담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할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소개하고자 한다.

Ⅱ. NVC를 활용한 학교폭력과 상담 영역의 시스템 구축

선행초에는 '기린마을'이라는 공간이 있다. 2015년 한국NVC센터 이연미 부대표와 연구년 중이었던 내가 함께 학부모실에 상주하면서 5, 6학년 또래 중재자 육성을 위한 동아리 (PEACE MAKER)를 만들어 운영하고, 수업 중 다툼이 생겨 수업 진행이 어려운 교사들을 위해 간단한 중재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 프로그램은 수업 시간에 사소한 다툼을 중재하기 위해 수업을 제쳐두어야 하는 교사들에게 매우 큰 환영을 받았고, 중재를 받은 친구들의 만족도 역시 높아서 깊어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찾아오는 손님들도 점차 늘어나게 되었다.

이듬해 학부모실이 아니라 상담실로 사용하던 곳을 '기린마을'이라는 이름으로 바꾸어 운영하기 시작했다. 이 곳에는 한국NVC센터 중재협회 소속의 회원들이 자원봉사로 상주하며, 수업 중 발생하는 갈등을 중재해주고, 감정이 격해진 친구들에게는 깊은 공감을 해주는 공간으로 활용되었다. 고학년의 경우, 담임 선생님과 학생들의 중재를 요청해오거나, 학급 전체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써클 진행 등의 도움을 청하기도 했다.

2015년~2016년 기린마을 운영을 하면서 얻은 여러가지 경험과 성과를 토대로, 나는 학교폭력을 평화롭게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고민을 시작했다.

법, 조례 등 기존 체계를 흔들지 않으면서 학교 자체로 가능한 범위가 어디인지 확인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그리고 상담의 경험을 통해 가장 실효성이 큰 NVC 중재의 기술이 무엇인지 찾아보았다.

1. 서로를 불편하게 규정짓는 용어 바꾸기

우선 NVC 의식에 기초했을 때 '학교폭력', '가해자', '피해자'라는 일종의 꼬리표(이름붙이기)를 적어도 우리 학교 공동체 안에서 다르게 표현해보고 싶었다. 그래서 '학교폭력' 대신 '갈등'으로, 가해자와 피해자라는 말 대신 '갈등 당사자'라는 말로 대신하도록 했다. 또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고민 끝에 '학교중재위원회'라는 이름을 사용하기로 했다.

물론, 이 모든 것들은 학교 안에서만 그렇게 하기로 한 것이지, 어떤 법률적 규정력이 있는 것은 아니었다. 학년초에 취지를 해설하는 가정통신을 발송해 학부모들에게 동의를 구했으며, 학교폭력예방 계획서에 당장 이와 같은 내용을 반영하였다.

때로 누군가로부터 '가해자'로 지목된 경우, '가해자'라는 이름이 주는 불편감과 억울함 때문에 갈등의 양상이 더욱 커지기도 한다. 가해자, 피해자라는 말 대신 '갈등 상황에 놓인 당사자'들이 있을 뿐이라고 생각해본다면, 말이 붙이는 꼬리표 때문에 불필요하게 번지는 갈등을 예방할 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같은 취지에서 '학교폭력'이라는 말이 주는 무거움과 두려움을 덜어내기 위해 기린마을 김순옥 선생님의 제안에 따라 '중재위원회'라는 이름을 사용하기로 하였다.

2. 피해와 가해를 판단하기보다 공동체의 평화를 위해 화해와 조정하기

학교폭력에 과한 법률의 취지는 최대한 피해자를 보호하는 데에 있다. NVC에서 힘을 사용하는 것은 보호하기 위한 목적일 때이다. 갈등 당사자가 둘 또는 셋이라 할지라도 문제를 따라 파고 들어가다보면, 반드시 관련된 제2, 제3의 인물들이 등장하고 생각보다 복잡한 문제인 경우가 허다하다.

둘 사이의 갈등이 오래 되지 않았고, 단편적인 문제일 경우에 중재는 훨씬 수월하게 이루어지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공동체 전체의 문제가 되기도 한다. 둘 사이의 문제라 할지라도 공동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 또한 당연하다.

사람이 둘 이상 모여 사는 곳이라면 갈등은 어떤 순간, 어떤 사람들 사이에도 늘 존재하기 마련이다. 학생과 학생뿐 아니라 학생과 교사, 학생과 학부모, 교사와 관리자, 학부모와 교사 등 우리가 학교라는 공간 안에서 맺을 수 있는 모든 관계가 곧 갈등의 가능성이기도 한 것이다.

그러므로 누구든 갈등이 발생했을 때 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요청하되, 갈등 당사자들을 피해자, 가해자로 가르지 않고 대화에 초대하여 서로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우리는 많은 문제를 해결했다.

우리는 상대가 자신의 마음을 충분히 알아주었다고 여길 때 분노 게이지가 내려가게 됨을 느낀다. 특히 자신에게 자극이 되었던 상대가 나의 마음을 이해했다고 여긴다면 더더욱 그 효과는 빠르게 나타난다.

분노를 느낀 상대에게 보복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 또한 그 방법이 나의 마음을 상대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라 여기기 때문이다.

3. 사건을 인지한 직후의 첫 프로세스, '공감받기'

선행초가 구축한 평화적 갈등해결 프로세스의 핵심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그것은 단연코 '공감받기'라고 할 수 있다. 갈등을 호소한 시점에서 하루를 넘기지 않고 반드시 공감을 받는다. 공감은 학급 담임이나 담당 교사(NVC 연구회) 또는 기린마을 선생님 중에 가능하다. 이 사람들은 응급한 상황에서의 공감을 통해 이후에 비극적은 방법만을 고집하는 (예를 들어, 학폭을 열어달라, 고소를 하겠다는 등) 것 대신에 자신의 깊은 마음을 들여다보고, 아픔을 위로받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 공감의 과정은 추락을 막아주는 일종의 안전그물 같은 역할을 한다. 부족한 내용은 이후의 과정에서 진행하게 되지만, 상대에 대한 엄청난 분노만을 가지는 경우, 대화를 나눌수록 일이 꼬이게 되거나 더 상처를 받아서 일이 커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격해진 마음을 조금이나마 풀어내는 과정을 거치면서 징계와 보복 대신 화해와 평화를 선택하게 되는 것이다.

Ⅲ. 선행초 중재위원회 갈등해결 보고서

1. 갈등 해결 보고서 소개
- PPT 자료로 대신함

2. 시사점

1) '학폭' 아닌 '갈등'의 개념으로 환원하여 조정한 첫 사례

처음 아이들이 갈등조정 요청을 해왔던 것은 1학기가 거의 끝나가던 즈음이었다. 여름방학이 일주일 남은 상황이었고, 시간에 쫓겨 충실하게 프로세스를 진행시키지 못한 채 어정쩡한 종결을 지었다.

그 문제가 계속 이어져 2학기가 시작되고 한 달 동안 1학기 때 갈등조정을 신청했던 두 학생의 고통은 더욱 극심해졌다. 심지어 다른 학급의 아이들까지도 따돌림에 동참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문제가 한 학급에 국한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옆반 담임 선생님이 이 아이들을 보호하려는 의도로 "다수가 두 명의 친구를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문제는 매우 심각한 사건이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두 명의 학생은 이 선생님의 이 발언으로 자신들이 공식적인 학교 전체의 왕따가 되었다며 괴로워했다. 아이들의 고통이 극심해지자, 부모님들의 분노와 슬픔도 극에 달하면서 아이들이 두 번째 갈등조정신청서를 제출했던 날 아침 교장실을 찾아와

자신들의 격한 분노를 드러냈다.

상당히 오래 지속된 문제였다는 점, 담임 교사가 문제의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점, 옆 학급의 담임이 두 아이의 따돌림 문제를 공론화한 점 등을 이유로 '무조건 학폭 개최'를 요구했다.

두 어머님이 교장실에서 분노하던 그 시간에 나는 두 아이들과 갈등조정신청서를 자세히 작성하고 문제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쉬는 시간이 되자 교장 선생님이 나를 불러 상황의 설명을 요구했고, 나는 때마침 받아 둔 아이들의 갈등조정신청서를 가지고 대화를 이어나갔다.

이 시간으로부터 학폭신고서가 아닌 갈등조정신청서가 정식으로 접수된 첫 사례가 되었으며, 다행히 부모님들은 우리 학교의 이와 같은 시스템을 인정해주었다. 물론, 조정이 되지 않는다면, 피해자의 입장에서 기존 시스템과 동일한 합법적 절차를 밟을 것이라는 전제를 한 뒤였다. 부모님들은 강력한 징계만을 요구하고 있었으므로, 이 전제가 오히려 안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같았다.

초반에 두 명의 학생을 괴롭혔다고 지목한 8명 학생들의 학부모들 또한 자신의 아이들로부터 들었던 과거의 이야기를 꺼내며, 어느 순간에는 관계가 역전되었던 사례도 있었음을 피력했고, 자기 아이가 '가해자'로 지목되는 것에 대해 몹시 불안하고 불편한 마음을 드러냈었는데, 우리 학교의 시스템을 이해하고는 곧장 대화의 장으로 기꺼이 나오게 되었다.

우리는 피해자와 가해자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고 '갈등당사자'라는 이름으로 써클을 종료할 수 있었다. 누구도 '가해자'라는 꼬리표를 달지 않고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 것은 지금 생각할 때도 가장 감동스러운 부분이었다.

2) 공감은 힘이 세다 1.
분노는 고통의 표현일 뿐이다.

학부모들이 격렬한 감정을 가지고 교장실을 찾아왔을 때 놀랍게도 교장 선생님은 평가나 판단 없이 부모들의 감정을 공감해주고 있었다. 교장 선생님 자신도 괴로움이 있을 때 기린마을을 찾아가 공감을 받곤 했는데, 이런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공감의 기술을 배울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교장 선생님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응급공감 이후 다행히 수업이 없던 내가 부모님들과의 계속적인 공감을 이어나갔다. 약 2~3시간 동안 나는 최선을 다해서 그 분들의 고통에 함께 머무르기 위해 노력했다.

처음 학교에 왔을 때보다 훨씬 편안한 마음으로 돌아가는 부모님들을 보면서 공감의 힘을 확인할 수 있었다.

3) 공감은 힘이 세다 2.
중재를 할 수 있는 에너지, 공감으로 채우다.

부모님들이 돌아간 뒤에, 1학기 때 내가 중재를 제대로 못 해서 문제가 더 깊어졌다는 그 분들의 비난과 원망이 아프게 다가오기 시작했다. 집으로 돌아간 엄마로부터 긴 이야기를 전해들은 아버지로부터 전화기 너머로 심한 비난의 욕설을 한참 듣기도 했다. 나에 대한 비난과 원망이 생각보다 강렬하다는 생각이 들자, 학부모들을 만나는 것도 두려워졌다.

가뜩이나 자책감에 괴롭던 나는, 지난 써클의 실패를 근거로 이번 중재에서 빠지고 싶었다. 이렇게 깊고 큰 갈등 사이로 들어갈 자신이 하나도 없었다. 그러나 두 명의 아이들은 나에게 중재를 부탁했다. 다른 사람들에게 지난 반 년의 이야기를 다 새롭게 하기가 너무 힘들다는 이유였다.

그 때 나의 NVC 선생님, 이연미 선생님이 떠올랐고, 긴 시간 나는 엉엉 울면서 나의 괴로움을 쏟아냈다. 선생님의 깊은 위로와 공감 속에서 지금 생각나는 두 문장이 있다.

- 선생님이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세요.
- 그래도 학부모를 만나세요. 선생님은 에너지가 있는 사람이라, 직접 만났을 때 할 수 있는 일이 훨씬 많아요.

깊은 밤 오랜 시간을 실컷 울고 깊은 위로를 받은 후에 나는 선생님의 조언대로 이튿날 바로 학부모를 만났고, 본격적인 중재를 시작할 수 있었다.

4) 공감은 힘이 세다 3.
아픈이에게 건네는 위로가 되다.

두 명 중의 한 아이가 갑자기 쓰러져 앰뷸런스에 실려갔다. 오랜 시간 겪었던 괴로움을 낱낱이 되짚는 일도, 묵혀두었던 분노와 슬픔을 계속 쏟아내는 것도 아이에게는 엄청난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일이었다. 특히 이 학생은 그 동

안의 일을 부모님에게도 전혀 이야기하지 않고 혼자 갖고 있었는데, 가슴 속에 꽁꽁 담아두었던 일들을 모두에게 이야기하면서 기운이 빠지는 것을 느꼈다고 했다.

저혈압 증세로 입원을 한 후, 아이가 이렇게 될 때까지 아무 것도 모르고 있었다는 부모로서의 죄책감과 분노는 더욱 깊어졌다. 나는 하루에 두 번씩 아이의 엄마에게 전화를 해서 아이의 상태를 체크하고 엄마의 아픔에 깊숙이 공감하는 시간을 가졌다. 담임 선생님 역시 나와 같은 역할을 했다.

이 과정에서 학교와 담임 교사가 아이를 얼마나 걱정하고 있는지, 또 진심으로 아이를 잘 돌보기를 원하는지가 전달되었고, 지속적인 공감으로 엄마의 분노와 슬픔도 조금씩 줄어들 수 있었다.

5) 공감은 힘이 세다 4.
갈등이 표출되는 데에는 관계 안의 스토리가 있다.

두 명의 아이가 괴롭힘을 당했다고 지목한 8명의 학생들 역시 사전 써클을 통해 진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과정에서 지난 1~2년 사이에 아이들의 관계의 변화도 들을 수 있었다. 어떤 시기에는 두 명의 아이로부터 괴로움을 겪었던 일도 있었고, 자신 또한 그 아이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했었다는 이야기도 들었다.

학부모들도 마찬가지였다. 자신들의 아이가 혹시 학폭 '가해자'의 위치에 서게 될까 두려운 나머지 아이들로부터 들었던 위와 같은 이야기를 포함한 그 동안의 긴 스토리를 변명처럼 늘어놓거나 대놓고 분노를 표현하기도 했다.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으름장을 놓는 분도 있었다.

학부모 써클은 기린마을 선생님 두 분이 진행하기로 했는데, 사전 써클 없이 바로 본 써클을 진행했다. 나는 본 써클의 과정에서 들은 이야기를 기본으로 분노가 큰 부모님들께 매일 전화를 해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그 동안 아이들 사이에 복잡한 사연이 있었음을 알고, 그들의 두려움, 불안에 공감할 수 있었다.

중재자가 이 모든 일을 이해하고 있다는 사실은 부모님들에게도, 학생들에게도 무조건 두 아이의 이야기만 듣고 일방적으로 '가해자'가 될 것이라는 불안을 낮추어 조금이나마 안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공감은 모든 중재의 바탕이 되었다. 분노와 슬픔, 불안과 두려움의 에너지를 함께 공동체를 돌보기 위한 긍정적 에너지로 바뀌어가는 것을 나는 모든 공감의 시도에서 느낄 수 있었다.

6) 학교 공동체와 NVC센터의 협력 시스템 가동

평소 학년 교사의 공동체가 긴밀히 운영되고 있었기 때문에 해결의 노력을 전체 교사가 함께 해나갈 수 있었다. 학부모 써클은 6학년 담임 교사 전체와 나(학년부장, NVC전담교사)도 함께 당사자로 참여했다. 그 과정에서 학부모들과 교사가 아이들을 함께 잘 돌보고 싶은 마음을 나눌 수 있었다.

갈등의 당사자였던 한 아이의 엄마는 학부모회장이었는데, 이 분은 중재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아이의 부모를 찾아가 직접 사과를 하는 등 적극적인 화해의 노력을 했다. 나름 학부모 사회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의 직접적이고 신속한 사과는 두 아이의 부모님에게 약간의 위로가 될 수 있었다.

본격적인 써클이 시작되면서 내가 이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학급의 담임 선생님들은 내 수업 시간을 빼주었고, 가정통신문 작성, 교육청 공문 보고 등의 실무를 교감 선생님이 직접 담당해주면서 교사들이 paper work에서 벗어나 전적으로 학생과 학부모를 돌볼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주었다.

NVC센터의 이연미 부대표는 나에게 중재를 시도할 수 있는 용기와 격려를 주었을뿐 아니라 중재의 일정을 잡아야 하는 첫 시기에 직접 학교에 방문해 기린 마을 선생님들과 함께 중재 스케줄을 정리하고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주어 짧은 시간 동안 우리가 해내야 하는 일들의 중심을 잡도록 도와주었다.

기린 마을 선생님들 역시 학부모 써클을 훌륭히 수행해주었으며, 처음부터 끝까지 늘 스탠바이 상태로 어떤 도움이든 필요한 시간에 줄 수 있는 태세를 통해 학교 공동체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다.

Ⅳ. 맺으며

우리가 NVC를 시도해볼 수 있는 거의 모든 것이 가능한 학교였으니, 분명 선행초등학교는 특별한 공간이었다. 이 특별한 공간에서 있었던 어쩌면 단순하

고 짧은 이 경험은, 크게는 학교폭력이라는 골칫덩어리를 어떻게 평화적인 그 무엇으로 바꾸어 볼 수 있겠는가 하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다시 이런 학교를 만드는 데에는 아마도 수년이 걸릴 것이고, 이 학교의 시도가 일반화되는 데에는 수십년이 걸릴지 모르지만, 나는 이 학교에서 있었던 모든 시도와 그 속의 실패를 소중한 씨앗으로 삼는다.

세상이 아무리 팍팍하고 가정이 붕괴되어 아이들의 삶이 무너져가더라도 학교라는 공간은 여전히 우리 사회 안에 든든하게 버티고 있고, 그 안에 아이들의 삶과 자신의 삶을 일치시키려는 가슴 따뜻한 수많은 교사들이 있는 한, 다소 느린 걸음이라 할지라도 우리 믿음은 언제고 현실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또, 아이들을 잘 돌보고 싶은 마음,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고 싶은 마음, 그 안에서 평화롭게 함께 배우고 성장하려는 마음이 바로 학교 구성원들 모두의 마음이기 때문이다.

발 표 3

내 아이를 위해서라도 이 재판에서 꼭 이길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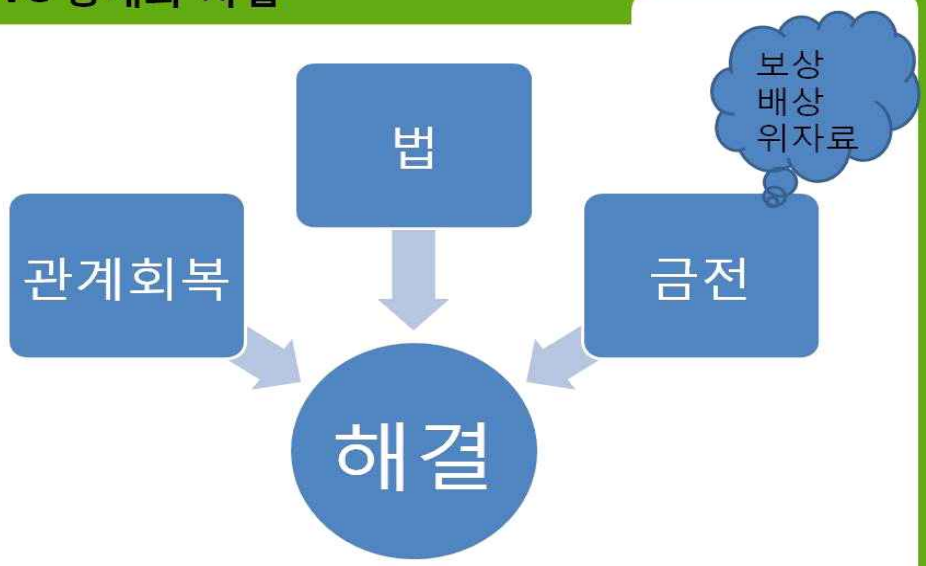
권영선
한국비폭력대화교육원 강사
서울가정법원 가사조정위원

공감과 선택

(내 아이를 위해서라도 이 재판에서 꼭 이길겁니다!)

한국 NVC 중재협회 권영선

NVC 중재와 사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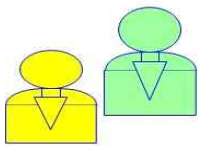
민사소송사건
- 손해배상

관련인물

Ⅰ. 원고

*행위를 받은
초등학교4학년 학생,
아버지, 어머니(3인)

Ⅱ. 피고



*(행위를 한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의
아버지, 어머니(2인)

청구취지

치료비 및 위자료

₩34,825,667

소송비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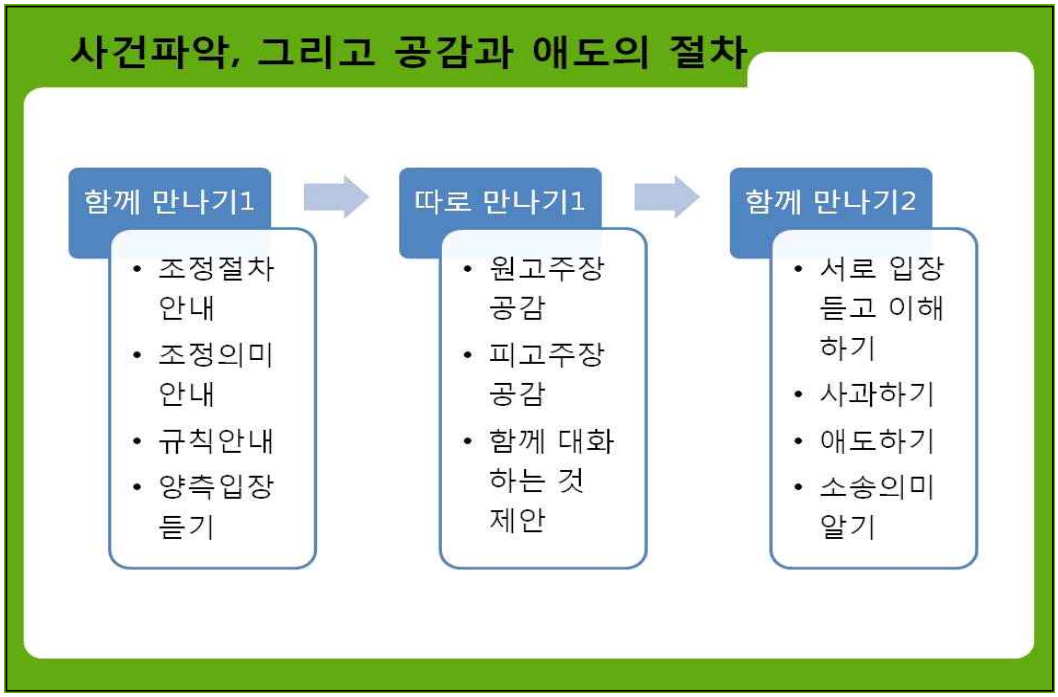
조정 진행 과정(10:30~15: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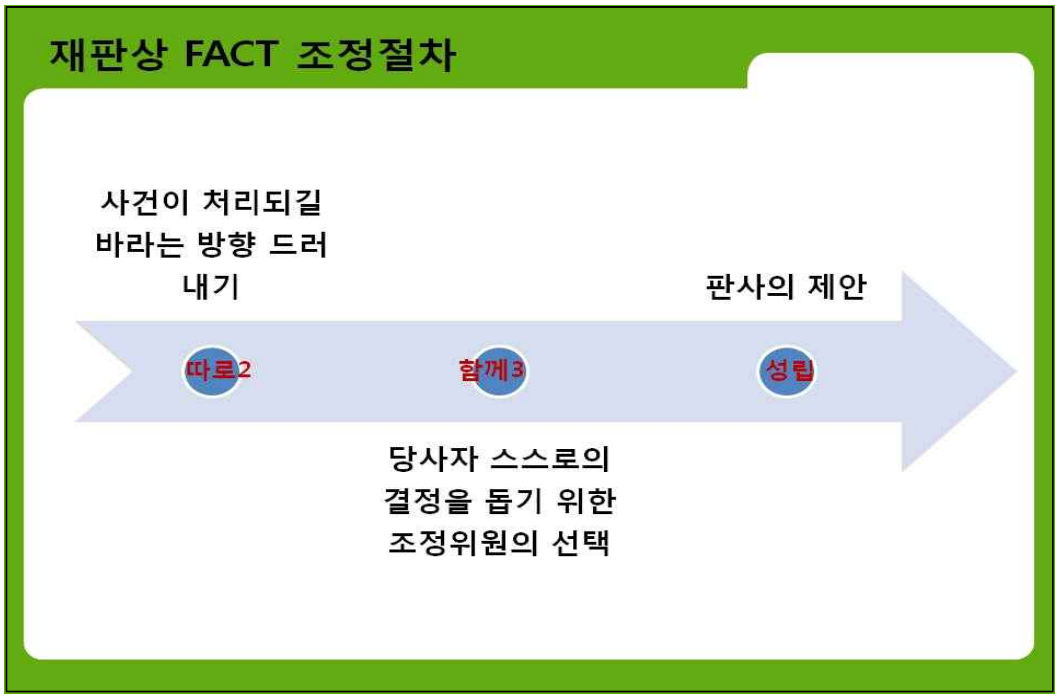
♥공감과 선택의 과정

<사건파악, 그리고 공감과 애도의 절차>

함께 만나기1 번역 → 따로 만나기1 공감 → 함께 만나기2 선택 → 따로 만나기2 공감과 선택 → 함께 만나기3 조정위원선택 → 판사의 제안과 자기결정

<재판상 FACT 조정 절차>


사건파악, 그리고 공감과 애도의 절차
함께 만나기1
• 조정절차 안내
• 조정의미 안내
• 규칙안내
• 양측입장 듣기
따로 만나기1
• 원고주장 공감
• 피고주장 공감
• 함께 대화하는 것 제안
함께 만나기2
• 서로 입장 듣고 이해하기
• 사과하기
• 애도하기
• 소송의미 알기


재판상 FACT 조정절차
사건이 처리되길 바라는 방향 드러내기
따로2
함께3
판사의 제안
성립
당사자 스스로의 결정을 돕기 위한 조정위원의 선택

사건 개요

사건 발생

체육시간에 피구를 하다가 서로 다툼	교실로 돌아와서도 서로 밀치는 등의 싸움을 하다가 피고측 학생이 연필로 원고측 학생의 얼굴을 찌름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및 교육청 재심청구

학폭위에서 두 학생 모두에게 피해학생으로서 심리상담 및 조언, 가해학생으로서 서면사과 결정	원고의 재심청구로 교육청에서 동일한 처분

↓

민사소송

치료비및 위자료(손해배상)을 지급하라	쌍방 가해이니 과실상계가 필요하다

함께 만나기 1-긴장

1. 조정절차 안내
2. 조정의미 안내 –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3. 조정위원의 역할 안내
4. 조정실에서 함께 지켰으면 하는 것

원고

- 강력한 공포로 시작되었다-아이 상처 치료하고 이 상황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다.
- 내 아이는 상처를 입었는데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 병원에 데리고 다닐 때마다 속상하다.
- 00이는 그 일을 잊어버린 듯하다-학교 결석도 안 하는 걸로 봐서...
- 피고가 처음에는 병원비 등 보상을 해 준다고 하더니 학폭위가 끝난 후에는 연락도 없다
- 조정이 원만히 될까 의구심이 든다.- 우리는 잘못이 없으니 보상을 받아야겠다.

피고

- 처음에 내 아이가 다쳤다는 심정으로 병원으로 찾아가서 병원비도 낸다고 했는데 거절하고 찾아오지 말라고 하였고, 학폭위도 열지 않는다고 해놓고 열었다.
- 부모의 마음으로는 아이들을 걱정해야 하고 우리 아이가 원래 그런 아이라고 말하는 뉘앙스에 마음이 상한다.-양쪽 모두 친구들의 진술서를 받으러 다님.
- 엄마는 상처가 난 사진이 알려지면서 집밖을 못 나갔다
- 우리는 받을 만큼 다 받았다고 생각한다.-사과를 해야 하나 어떤 것을 사과해야 할 지 모르겠다.

발 표 3

따로 만나기 1-경험한 일에 대한 공감

원고	피고
• 학폭 안하고 협의했으면 좋겠다-병원에 잘 안 오는데 왔다 • 재심 이후 학교에 중재 요청했으나 학교에서 응답이 없었다. • 사건은 종료되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해결된 것은 없고 해서 소송으로 왔다. • 오해 푸는 것보다 피해에 대한 사과와 보상 원함 • 중요한 것은 아이의 고통이 현실이라는 것과 이것에 대한 상대방이 인정해 주길 원함 • 주변으로부터 자식을 가지고 거래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 • 내 아이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은-전학 • 상대방과 대화할 의사 확인-대화 돕겠다	• 우리 애가 원래 폭력적인 애가 아니라고 말하고 싶고 지켜주고 싶다 • OO이를 처음에는 혼냈는데 나중에 사과했다-처음에는 내 아 이의 상처를 돌보지 못했다. • 내 아이를 내 손으로 지켜주기 위해 변호인 없이 내가 여기까지 왔다.-내 아이를 위해서라도 이 재판에서 꼭 이길 겁니다. • 놀이터에 나가 본지도 오래되었고 학교행사에도 못 갔다 쓰레기 버리는 것 외에는 한 동안 밖에 나가지 못했다. • 학폭위 한다만다에 피를 말리는 시간이었음 • 저희는 죽일 사람이 되고 아이는 나쁜 아이가 되고 줄 것 다 주는 결과가 됨 • 내 아이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은-이사 • 상대방과 대화할 의사 확인-대화 돕겠다

함께 만나기2-애도와 이해

원고	피고
• 아이가 다쳤는데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 • 주변으로부터 자식을 가지고 거래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학폭위를 빌미로 합의를 종용했다, 피해 사진을 일부러 돌렸다는 등. • 처음에는 합의를 보자고 하더니 학폭위가 끝나니 모른척해서 화가 났다. • 학교에 대해서 서운하다	• 작은아이가 피아노 학원에 갔는데 아이들이 "너희 오빠는 살인자야"라는 말을 듣고 충격받았다. • 동네에서 못산다는 주변의 말을 듣고 사람들이 무서워 쓰레기 버리러 나가는 것도 힘들었다. • 학폭위에서 아이를 상대로 찌를 때 손의 자세를 물어보았는데 너무 힘들었다. • 상대아이는 심리치료를 받는데 우리 아이는 아무런 조치도 못했다. 우리 아이도 아프다. 학교에 갈 때 반창고를 꼭 챙겨간다. 친구가 다치면 붙여 준다고... • 사과를 함

따로 만나기2-해결책 선택을 돕기 위한 공감

원고	피고
• 치료비와 위로금을 요구 • 조정위원이 범위를 달라고 제안하자 최소 1,100만원요청 • 상처및 심리치료 실제 비용 600만원 • 변호사 선임	• 심리치료비는 줄 수 없다고 함.-나는 경황이 없어 우리 아이가 아픈 것은 미처 챙기지 못했다 너무 미안하다. • 나도 우리아이에게 심리치료를 받게 하겠다 • 어느 정도 금액이 적정선인지 모르겠다. 결정하기 어렵다-법률적 조언을 받고 싶다 • 판사가 법조인이니 판사의 제안은 안심하고 따르겠는가?

함께 만나기3-조정위원의 판단과 선택

1. 조정위원의 의견및 제안-현재 아이를 보호하는 길은 이 사건을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종결하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부모의 마음이 편해야 아이도 편해
2. 판사의 제안을 받아들이겠는가?

원고	피고
• 보상을 받고 싶다.	• 그렇게 하겠다.

강제 조정-선택의 기회 주기

후기

감사 - 판사

- 판결 대신 조정 선택

축하 - 조정위원

- 공감 그리고 선택의 기회 제공

MEMO

한국NVC센터 소개

한국NVC센터는 NVC (Nonviolent Communication, 비폭력대화) 정신을 배우고 실천하는 것을 지원함으로써 **개인과 집단의 갈등을 평화로운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을 돕고 모든 사람의 욕구가 평화롭게 존중되는 사회**를 이루는데 기여하기 위해 설립된 비영리 단체입니다.

한국NVC센터는 NVC 창시자인 마셜 로젠버그(Marshall Rosenberg)가 설립한 CNVC(Center for Nonviolent Communication)의 한국 지역 조직입니다.

CNVC는 NVC를 배우고 나누는 것을 지원함으로써, 개인과 조직 안에서 그리고 경제, 교육, 정의, 의료, 평화활동의 사회 제도/체제에서 지속가능하고 서로에 대한 연민을 잃지 않고 삶에 기여하는 인간관계를 만들고 갈등을 평화롭게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하고 있는 국제적 비영리 단체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1.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다른 사람과 연민의 유대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자 합니다.

2. 가슴에서 나와서 상대방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데 기여하는 즐거움을 느끼고, 자원을 나누며, 갈등을 예방하고 평화롭게 해결하는 **능력**을 길러주는 기술을 **실제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데 있습니다.

3. 더 많은 사람들이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삶에 도움이 되는 **사회 구조**를 만들어 가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NVC가 추구하는 세 영역

1. 자신과의 연결

어린시절부터 상처 받고 위축되어 긴장된 몸과 마음을 자기공감으로 깊이 수용한다. 이때 이완된 몸과 마음을 통해 욕구의 에너지(divine energy)가 흐르면서 치유되는 경험을 하게 된다. 자신에게 하는 폭력을 멈추고,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자신을 연민으로 대할 수 있게 되어, 존재에 대해 편안하고, 즐겁게 느끼게 된다.

욕구에 기반을 둔 생각, 말, 행동을 하게 되고, 같은 상황에서도 다른 행동을 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 이것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나 사회활동을 하기 전에 선행되어야 하는 작업이다.

2. 다른 사람과의 연결

자신 내면의 긍정적인 에너지와 연결한 상태에서 내면 세계와 외부 세계가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상대가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든지 상대도 나와 똑같은 느낌과 욕구가 있다는 것을 존중하면서 NVC로 대화를 할 때, 이러한 조화가 가능하다.

주어진 어떤 상황에서도 무의식이나 습관에서가 아니라 의식적으로 나의 관찰, 느낌, 욕구, 부탁을 표현하고, 상대의 관찰, 느낌, 욕구, 부탁을 들으면서 연결한다.

3. 사회변화(Social Change)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과 욕구 에너지로 연결되고 연대를 이루었을 때,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 사회 구조나 기관을 원래의 그 구조나 기관이 추구했던 영적인 차원으로 회복시킬 수 있다.

현재 국제NVC센터에서는 사회변화를 위한 일환으로 프리덤 프로젝트(Freedom Project: 재소자와 출소자에게 NVC 교육을 통해 내면의 평화를 되찾아주고 지역사회로 복귀하도록 돕는 일)와 회복적 정의 프로젝트(Restorative Justice: 징계와 처벌 그리고 배제를 통한 고통주기 방식의 패러다임이 아니라 치유와 회복 그리고 관계의 개선과 공동체로의 복귀를 위한 패러다임)를 시행하고 있다.

한국NVC센터가 하는 일

한국NVC센터는 모든 사람의 욕구가 평화롭게 충족되는 세상을 만들려는 꿈을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힘을 모아 만든 비영리 단체입니다.

(주) 한국NVC교육원에서 **교육**을 진행하고,
한국NVC센터 출판사는 교재, 교구 **연구개발 및 출판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한국NVC센터 비영리민간단체에서는 **NVC의 의식을 나누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사업

- **NVC 정신을 배우고 실천하면서 살 수 있도록 NVC 교육을 제공합니다.**
- 사회적인 필요와 재정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개인과 단체의 교육을 지원합니다.
  - 비폭력대화 NVC1,2,3, 대상/주제별 교육, 지도자 준비과정, IIT국제심화 교육 등
  - 경제적 도움이 필요한 개인/단체의 NVC 교육 지원
    (예: 아동보호시설, 장애인자립센터, 대안학교, 등)
  - 청년들을 위한 무료공개강연

치유와 회복사업

- **아픔이 있는 현장에서 공감과 진실성에서 나온 깊은 연결로 치유와 회복을 돕습니다.**
  - 다음의 기관들을 우선적으로 응답합니다.
    교도소 (수감자와 가족들)
    보호관찰소 (폭력으로 수강명령 받은 청소년, 성인)
    가정폭력피해 여성쉼터 (피해 여성 청소년, 성인/행위자)
    청소년쉼터 (가출해서 쉼터에 머물고 있는 청소년들)
    아동보호시설 (보호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아동•청소년들)
    군대 등
  - 개인, 부부, 집단 상담

갈등해결사업

- **갈등을 예방하고 평화로운 해결을 돕습니다.**
  - 한국NVC중재협회와의 협력사업
  - 공동체 회복을 위한 비폭력대화 교육, 중재, 회복적써클 진행
  - 법원의 가사조정, 화해권고 활동 및 지원

국내·외 연대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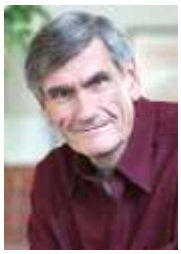
- **서로의 자원과 역량을 나누고, 그 즐거움을 함께 하기 위해 국내외 단체들과 연대합니다.**
  - 회복적정의 네트워크, 시민평화대학 네트워크
  - 국외 NVC 공동체와 연대 활동, 도움이 필요한 국제 NVC 공동체 지원

연구출판사업

- NVC를 효과적으로 배우는 것을 돕기 위한 교육 자료를 연구 개발하여 보급합니다.
  - 연구개발 : NVC를 효과적으로 배우는 것을 돕기 위한 교육자료 연구개발
  - 번역출판 : NVC 관련 자료와 도서 번역, 출판
  - 교재 교구 판매

설립자 소개

마셜 B. 로젠버그는,



국제적 평화단체인 CNVC의 설립자이자이다. 비폭력대화: 일상에서 쓰는 평화의 언어, 삶의 언어 (Nonviolent Communication: A Language of Life)의 저자이며, 임상심리학박사로서 지난 40여년 동안 NVC를 활용하여 가족, 교육기관, 건강/위생 산업, 사회복지기관 등에서 갈등을 평화롭게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그가 1984년 설립한 CNVC는 현재 220여 명의 국제인증지도자를 배출하였고, 전 세계 65개국이 넘는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다.(1934.10.6.~2015.2.7.)

한국NVC센터의 역사

2003.

국내에 비폭력대화를 처음 소개
이화여대 평생교육원에서 비폭력대화 교육 시작

2004.5.15.~24

국제심화교육(International Intensive Training) 개최
Marshall Rosenberg 주관 교육

2004.11

비폭력대화(초판) 출판

2006.10.14

한국NVC센터 개소식 서울시 서대문구 창천동

2007.6.25

한국NVC센터 창립총회 개최

2008.5 비폭력대화 워크북 출판

2011 NVC Mediation 1년 프로그램 진행

2012.10 **한국비폭력대화교육원 설립**

2012.12.22 한국NVC센터 (재)창립총회

2012.7.21.~30 국제심화교육(International Intensive Training) 개최

2013.3 NVC와 불교와의 만남_Shantigarbha

2013.8.29 부천지원간 형사재판에서의 회복적사법 실시 MOU 체결

2014.5.31 **한국NVC중재협회 창립**

2014.6.9 **비영리민간단체등록**

2015.1. 국제심화교육(International Intensive Training) 개최

2016.3.22 인천가정법원과의 업무협약

2016.8.22.~24 소시오크라시(Sociocracy) 워크숍 및 조직적용

MEMO

한국NVC센터
전화 : (02) 391-5585 전송 : (02) 325-5587
E-mail : nvccenter@krnvc.org, mediation@krnvc.org
홈페이지 : http://www.krnvc.org
신촌센터 (03785) 서울시 서대문구 신촌로 3가길 33(창천동)
선릉센터 (06159)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95길 23, 3층(삼성동, 남양빌딩)